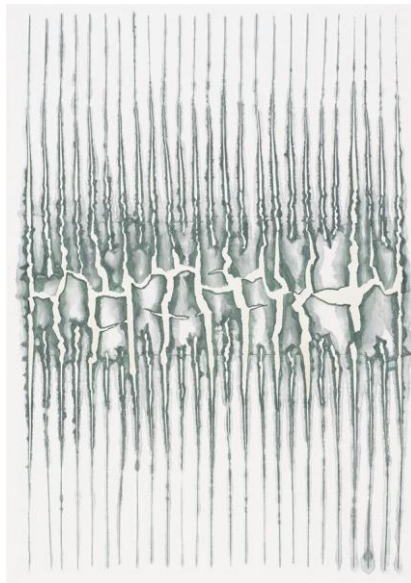


한지와 붓을 벗어난 수묵

韓 中 대만 수묵화가들 새 길 모색

인현우 기자

| 수정: 2015.11.04 16:39 | 등록: 2015.11.04 16:39



권영우의 '무제'는 한국의 전통 한지를 칼로 찢어낸 후 틈새로 프랑스의 푸른 잉크인 과슈를 흘려 번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국제갤러리 제공

수묵의 현대화는 1960년대부터 한국 화단의 중요한 과제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02-3701-9500)에서 내년 3월 6일까지 기증작품전을 열고 있는 서세옥이나 국제갤러리(02-735-8449)에서 12월 6일까지 작품전이 열리는 고(故) 권영우는 모두 동양화과 출신이지만, 서양회화의 영향을 받아 각각 수묵추상화와 실험적 수묵화로 나아갔다. 서세옥의 '인간들'은 수묵의 점과 선, 여백을 활용해 극도로 추상화된 인간 형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권영우는 서구 앵포르멜 회화의 영향을 받은 1970년대 단색화가의 일원으로 분류되지만, 작품의 기원은 명백히 먹과 한지에 있다. 그는 한지를 찢고 그 사이로 번져나가는 먹과 과슈(Gouache·프랑스산 푸른 잉크) 얼룩이 만들어내는 우연적인 모양을 회화에 사용했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